

'깊은 방' 에서 만난 내면의 세계

웃칠화가 정채희 개인전 11월 19일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막힐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쉬었다 와요. 그곳이 곧 깊은 방이죠. 외부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의식의 공간, 제 내면을 지탱해주는 그 방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웃칠화가 정채희의 개인전 '깊은 방'이 11월 19일까지 대학로 샐터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웃칠에 흰색 달걀껍질이나 자개로 표현한 이색적인 작업을 비롯해, 색상을 보다 풍부하게 사

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삶 속에서 수행을 해요. 늘 명상을 하고 작업하며 삶을 수행 삼아 살고 있죠. 또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니 불교는 저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죠."

꽃나무 등 천연 재료와 이미지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듯, 작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 길도 생기고 인연도 생기는 인간사 즉 연기법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다.

또한 불교와의 인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동자, 기원과 꽃잠, 부처부부 등의 입체작품도 눈길을 끈다.

특히, 지상의 원도갤러리에서 시작해 지하로 이어지는 갤러리 공간을 외부로부터 내면으로 이어지는 작가의 의식을 담아내는 '깊은 방'으로 해석해내 주목된다.

한편, 정채희 작가는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중국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갤러리 아트사이드, 학교재,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미술관 등 웃칠화로 10여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해인사의 <해인지>에도 작품과 글을 연재 중에 있다. (02)3675-3737

정혜숙 기자

명상으로 만난 내면 예술로 승화 '동자승' 등 불교 소재 작품도

용한 그림, 한지와 여러 종류의 종이를 베이스로 건칠기법을 응용한 불상 입체작품 등 40여점을 선보인다.

정 작가는 중국에서 다양한 벽화 기법을 공부한 뒤 귀국해, 한국의 전통 웃칠 기법을 회화에 접목한 작업을 꾸준히 시도 해왔다.

불자인 그는 작업실에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명상을 하는데 이 과정을 내면의 깊은 방에서 행하는 휴식이라고 전한다.

"예전에는 절에 가서 삼천배, 만배 수행



'깊은 방'. 정채희 작가는 외부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동자승, 돌부처 등으로 표현했다.

응공조계종 영남범음범패 시연

10월 30일 광화문광장서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이 10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영남범음범패 시연했다.

(사)한국잡지협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는 응공조계종 스님들과 신도 30여명이 공연해 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시연 후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은 한국잡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한편, 범패는 불교의 49재 의식 가운데



응공조계종의 영남범음범패 시연 장면.

하나인 영산재의 꽃이라 불리며 주요 의식에 행해진다. 범패와 함께 하는 춤은 작 범무라 하는데 바라춤, 작복춤, 범고춤 등으로 구성된다.

정혜숙 기자

'蓮花의 향' 음성공양에 가득 실어

(연화)

동국대 한국음악과 개교 108주년·창설 20주년 기념음악회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경주캠퍼스)가 개교 108주년·학과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11월 14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연화의 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연은 한국 음악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국예술단과 재학생들이 법패, 실내악곡, 관현악곡 등을 선보인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20년동안 불교음악의 생활화와 음성포교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음악과의 역량을 보여주는 무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음악과학과장 한상일 교수는 "불교음악은 고려시대 때 전성기를 누렸지만 조선시대 때 퇴색되어 찬란함이 희석되었다. 한국음악과는 그동안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찬불가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음악회 역시 대중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찬불공연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공연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연은 원효대사의 화엄사상과 불국정토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의 생활화 및 세계화의 염원을 담은 무대로 구성된다. 첫 무대는 불교음악과 불교무용을 공부한 졸업생 20여 명과 지도교수 법현 스님이 함께

하는 '영산회상-깨달음의 향연'이 펼쳐진다.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의식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를 모티브로 범패, 바라춤, 나비춤, 범고춤 등을 보여준다.

또한 동국대 한국음악과의 박상진·한상일 교수 등이 작곡하고 김새아, 손지혜가 노래하는 찬불가 공연도 주목된다. 연פות으로 피는 당신, 도천수관음가, 정진의 노래

11월 14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서

영산회상, 관음송 등 10여 곡 연주

김희경 씨 새 교성곡 선배

'원효' 칸타타형식으로 구성

저어, 관음송 등은 경기민요로 선법과 일반 국악가요풍으로 작곡해 대중들이 쉽게 따라부를 수 있도록 했다.

김희경 씨가 새롭게 작곡한 교성곡 '아! 원효'의 일부도 첫선을 보인다. 원효 스님의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든 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할 필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경주캠퍼스)가 개교 108주년과 학과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정기연주회 '연화의 향'을 11월 14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연다.

요가 있겠는가(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라는 깨달음의 의미를 교성곡(칸타타) 형식으로 꾸민다. 108 번뇌를 녹이고 불국 정토를 실현하려는 염원이 담겼다.

이밖에도 가야금산조합주(윤소희 교수 외 18명), 향불(소리 김새아), 관현악 '아리랑' (편곡 이인원),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협주곡(해금 김승택), 모듬북 협주곡(박성용 외 5명), 풍물난장이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동국대불교음악과는 "음성공양도 하나의 훌륭한 포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과에 음악법사 제도 등을 도입해 각 사찰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실내음악으로 포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며 계획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1995년 개설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과 현대에 부응하기 위한 불교음악, 컴퓨터음악, 전통음악, 창작음악 등을 교육해왔다. 또한, 인접 학문과의 학제 간 교육을 중심으로 전통음악과 어산·작법무의 전문가 양성, 교직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불교음악 예술가 전문교육 학과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음의 학 화폭으로 날아들다

정행 스님 개인전 11월 19일~25일

정행 스님(부산 구해정사 주지)이 학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심학-마음으로 보는 선서화전'이 11월 19일~25일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좌선삼매, 동행, 무, 가축 등 학을 주제로 한 선화 30여 점을 선보인다.

15년전 설악산 토굴에서 안거하던 중 떠오른 학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다고 스님은 설명한다. "수행 도중 보게 된 학을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학의 모습에 심취해 1년 동안 그림만 그린 적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을 정도로 심취해 방 안이 그림으로 가득했죠. 이 학들을 심학(心鶴)이라 이름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스님은 그동안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로 나눠 주기는 했지만 전시를 열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인들의 권유로 이번에 첫 개인전을 갖게 된 것이다. 전시 작품으로 좌선 삼매에 든 학, 무리를 지어 수행문답을 하는 학, 마음을 나누는 학 등 다양한 모습의 학을 통해 행복한 수행의 여정을 보여준다.

한편, 정행 스님은 1989년 일본 고려사대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설악산, 함천, 부산 등의 토굴에서 수행정진했으며 현재는 부산 구해정사 주지를 역임하고 있다. (02)736-6669

정혜숙 기자



'동행'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뜻이 담겨 있다.

기독교재단 갤러리에 불화 전시 '눈길'

불화가 김명희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서 전시

불화가 김명희 작가가 기독교재단인 영등포 여성미래센터 1층 바오밥나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11월 14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서 작가는 아미타불삼존도, 자야, 관음보살 등 불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2년전, 우연히 갤러리에 작품을 감상하러 갔다가 관장님께서 제가 불화작가라고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섭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장소라 망설였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기독교인에게 불화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전통 불화는 물론 현대적 분위기가 가미된 작품으로 대중들에게 불화를 알리고자 노력했다.

"대표작은 아미타불삼존도지만 제주도 관동사에서 작업하며 떠오른 영감으로 작업한 '자야' 등은 불화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죠. 불자 비불자 모두에게 불화가 대중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의지를 전했다.



김명희 작가의 '아미타불삼존도'

현재 조계사 청년회 불화반을 지도하고 있기도 한 그는 "앞으로 청년들에게 불화의 정신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싶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02)2676-2100

정혜숙 기자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